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9454

<목 차>

표 목차 ii
그림목차.....iii
Abstract.....iv

1. 머리말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1.2 연구 대상 및 방법.....3

2. 한국어교육의 역사 및 실태.....4
 2.1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8
 2.2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11

3.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20
 3.1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실태.....21
 3.2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의 문제점.....24

4.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의 방향.....25
 4.1 한국어교육에 대한 영어 원어민 교사의 요구 조사.....26
 4.2 한국어교육에 대한 영어 원어민 교사의 요구 분석.....28
 4.3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국어 교육의 방향.....46

5. 결론.....54

<참고문헌>.....57
<부록>.....61

표 목차

<표 1> 비즈니스 기술 확인 목록.....18

<표 2> 영어 원어민 교사 한국어 학습기간.....29

<표 3>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30

<표 4> 한국어학습에서 관심 분야 선택.....32

<표 5> 한국어 이외의 관심분야.....33

<표 6>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방법.....34

<표 7> 초급 단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소개의 비중.....36

<표 8> 한국어 사용 상황.....38

<표 9> 한국어 학습 후 큰 변화.....43

<표 10 >한국어학습기관을 알게 된 경로.....44

<표 11> 한국어교육의 시기.....46

<표 12> 초급단계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화항목.....50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몰라 불편을 겪은 경험 여부.....39

[그림 2]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학습 여부.....40

[그림 3]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 숙지 여부.....41

[그림 4]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 기회
필요 여부.....42

[그림 5] 동료교사에게 한국어 학습 추천 여부.....45

Instruc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Native English Teacher

Cho Hwayo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ang Huis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eeds of learners of Korean who work as professionals for companies in Korea in light of Korean for specific purposes. The focus of analysis for this study was tasks, a meaningful acquisition unit from a language learner's perspective. The needs analysis focused on the target tasks job-experienced business learners would need to perform preferably in Korean in the course of their job.

In the introduction, the importance of needs identification is reviewed and shown to be one of the primary six phases of a systematic approach to language curriculum development. The two major different approaches to syllabus design - Synthetic and Analytic approaches - are also presented in support of task-based needs analysis in Task-based Language Teaching. Finally an overview of the current trends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syllabus design is presented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analysis consisted of three steps: gathering basic information, a survey, and a follow-up interview. The sources of information included business persons studying Korean, Korean teachers, Korean co-workers, Korean Language institute staff, related articles, etc. The questionnaire was based on the results of interviews conducted during initial research. The survey questions covered learners' general demographic information, learning needs, and target tasks. It was found that learners needs differed greatly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s; language group, age, position, length of time in Korea, length of time of learning Korean, frequency of using Korean.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professional Korean learners had very specific needs. The target tasks considered to be of greatest importance fell into two categories; job related and inter-personal. Job-related tasks included participating in meetings, reading reports and documents, reporting, checking e-mails, searching the Internet for information, and using the telephone. Inter-personal related tasks included conversing with co-workers, exchanging business cards, introducing one's job or company.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Syllabus designers and teachers attempt to use comprehensive targeted tasks when designing pedagogic materials and by way of discourse analysis attempt to use the most authentic materials possible. Syllabus designers and teachers develop curriculum that acknowledges the communicative and cultural needs of professionals working in Korea. Syllabus designers and teachers consider students' learning needs, including time constraints and obstacles to using Korean in the course of their job. The bilingual surroundings of Korean companies are unique to Korean for Business Purposes and should not be equated with the requirements of English for Business Purposes.

1. 머리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시작하여 겨우 5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발맞추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미혜(2003:1)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한국어교육은 2000년대 들어 학문적인 정체성 확립, 학문 간의 연계활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의 경제력 향상,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한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과 세련'을 추구하며 '해당 언어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누리는 것'[1]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모두를 교육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성기철(1998)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언어보편적인 교육목표를 기능적 목표, 지식적 목표, 사회·문화적 목표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의사소통 능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란 한 언어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양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의 형태와 법칙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정은(2006:1)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은 국내외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일반적인 학습자와 여기에서 출간한 교재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교육현황과 교육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수준 높은 한국어교육과 보급을 위해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교수법, 교재 개발, 교수과정 설계 등의 세부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1) 서울대 언어교육원 내부 교육과정 자료에 나오는 '총 목표'는 다음과 같다.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과 해외동포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민현식 ,2004). 이 외에도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여러 논의들에서 대체로 이와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될 수 있고, 세계적인 학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 목적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한습자의 요구에 따라 가장 세분화되어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연구가 비전문직 노동자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전문직 노동자의 한국어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한국어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8년 12월 31일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발표에 의하면 총 체류 외국인이 2007년도에 비해 8.7% 증가하였다[2]. 이 외국인들은 관광 및 방문 입국자들과는 입국목적과 기간이 다르다. 이들은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을 필요로 한다. 다만,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한국어 학습 영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목적 한국어의 경우, 상당수의 대학이 한국어교육기관을 두고 한국어교육, 교재 개발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특수목적 분야의 연구는 한국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혼이주 여성,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숙(2003)의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제 단위 학습자의 요구분석에서는 최근 법무부 통계자료에 중간 이상 관리직 및 전문 기술 인력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하나의 독립된 한국어 학습자 집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업목적 한국어는 비전문직 노동자 (흔히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이주 노동자라고 일컬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목적의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직업의 특성, 직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직업목적 한국어학습자 중 상대적으로

---

2) 200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158,866명으로 전년도보다 8.7% 증가하였다. 국제화의 진전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27.7%, 결혼이민자가 11.0% 증가하였으며 동포포용정책으로 방문취업자격자가 31%나 증가하였다.

수가 많은 비전문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과 교재 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전문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와 교육과정 연구는 그 수요와 목적에 있어서 직업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비전문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한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미미하다.

본 논문에서는 직업목적 한국어 학습자 중 전문직 노동자,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한국어교사 집단의 한국어교육의 현황 파악,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은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목적 한국어교육과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3] 일반목적 한국어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한국어교육으로 모든 한국어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결혼이주 여성의 급증으로 인해 이들의 원활한 한국 생활과 적응을 돕고자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이 정부차원과 각 시도, 민간단체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특수목적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에 따라 크게는 학문목적과 직업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문목적의 한국어는 한국에서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직업목적 한국어는 크게 비전문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과, 전문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직노동자 중에서도 E-2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영어 원어민 교사 집단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와 사설 유치원, 학원 등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직업, 직장의 성격상 수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에서 동료교사를 비롯해서, 생활에서 접하는 한국인들까지 포함하면 다른 직업의 외국인들

3) 분류 기준과 세부 내용은 제2장에서 기술하고자 함.

보다 다양하고 많은 한국인들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원만한 직장생활 및 학생들에게 영어를 지도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중 직업목적 한국어교육은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수정(2008:447)에서는 직업목적 한국어에 대한 연구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실시한 김진숙(2003), 이미혜(2003), 정명숙(2003), 김보경(2003)의 연구가 있고, 직업목적 한국어교육 내용을 위한 담화분석 연구로는 서유경(2004), 박지원(2005)의 연구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하재선(2006), 곽수진(2007), 심민희(2007)에서 비즈니스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에 관한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다. 직업목적 한국어에 대한 이 논문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무직노동자의 한국어교육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고, 영어 원어민 교사의 한국어교육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영어 원어민 교사 집단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 현황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요구를 직접 면담 또는 설문을 통해 파악하여 이를 통해 영어 원어민 교사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문제점들을 개선,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어교육의 역사 및 실태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한국어를 학습하려고 하는 이들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내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을 보면 1992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국외 한국어 교사 교육'사업을 시작하여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 등지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

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지역, 러시아의 사할린 등 우리 동포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 사업을 전파했다.

2001년 2월에는 본격적인 한국어의 국외 보급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진흥을 위해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재원과 인력의 부족, 법적 지위의 불안정 등의 이유로 활동이 미약하였으나 최근에는 한국어 범용 교재 개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 사전과 한국어 문형 사전의 개발,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육 능력 인정 시험 시행,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시행 등의 사업을 하면서 한국어 국외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어 세계화재단은 2005년 4월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국회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 통과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국제교류 전문기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재단은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비한국계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한국어 연수 펠로십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전공 학부 고학년 학생부터, 한국어교원, 외교관, 한국 관련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배경의 외국인들이 3개월부터 1년간 국내 대학부설 어학연수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2000년 10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국어 세계화 및 한국어 국외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있다. 이 재단의 주요 사업은 국내 및 국외의 한국어 진흥 및 보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보급사업, 교포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사업, 한국어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한국어 국외 보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에 관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 교사 연수회를 지원하거나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보조 교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62년 설립된 국제교육진흥원이 있다. 국제교육, 교류의 분야에서는 국제간 교육협력 및 우호 증진을 통하여 교육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외국 정부 초청 장학생을 선발 관리하고 있다. [4]

이러한 국가 기관 이외에 국내 대학기관에서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59년에 연세대 한국어학당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후 1997년 기준 16개 이상의 대학에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류 열풍과 우리나라의 국력향상으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서울, 경기 지방 외에도 상당수의 지방대학에서 유학생,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역시 빠른 속도로 개설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1872년 일본 쓰시마에 조선어 학습소가 개설된 후 1997년 현재 미국에서는 주말 한글학교가 832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100개 이상이다. 중국에서는 26개 이상의 주요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70개 이상의 한국어 강좌가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그 외 호주,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뉴질랜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네덜란드 등 외국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1997년에는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Scholastic Assesment Test)의 선택과목 외국어 시험인 SATII에 한국어가 채택되었고, 국내에서도 1997년에 한국어능력시험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의해 개발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아서 실시하고 있으며 응시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3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59년에 시작하였고 그 역사가 길지 않다. 더욱이 한국어교육과 연구가 균형을 이루면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한국어교육의 방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열악한 교육여건하에서도 몇몇의 국어학자 그리고 교육현장의 교사들의 노력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

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권 특집자료 제1장 참고.

조항록(2008:2)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는 50년대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이래 60년대 3개소, 70년대 4개소, 80년대 7개소에서 최근에는 1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학습자 수 역시 50년대 24명에서 지금은 교육기관 재학생 수만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센터 등 정규 학습자 수로 집계되지 않은 학습자 군을 합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이러한 한국어교육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연구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학부와 (교육)대학원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이 속속 개설되고 관련 학회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고 있으며 개인 차원의 연구 성과물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대학의 경우 교재가 정식 출판된 기관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서강대, 조선대등이 있고, 박영순(2003:64)에서는 교재를 출판한 곳을 살펴봤는데 국제교육진흥원, 국학자료원, 명도원, 명지출판사, 한국어세계화재단, 시사영어사, 학연사, 한림출판사 등이 있었다. 이 교재들은 일반목적 한국어를 위한 교재들로 전체적으로 초급교재는 비교적 많이 개발되었으나 고급 교재는 매우 적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문법교재와 독해 교재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준별 통합교재, 이중언어교재, 학습서, 워크북 같은 것도 개발되어야하고 평가만을 위한 교재도 개발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적합한 교재개발도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맨 처음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목표로 개설된 학과는 한국외국어대학 한국어 학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측면의 교육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또 1999년 1학기에 경희대학교 외국어학부 내에 한국어전공이 개설되었다. 대학운영과정에서는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이 자리 잡고 있다. 1988년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이 개설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국어의 하위 분야가 아닌 하나의 독립성을 지닌 전공 영역으로 분리되어 교육,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교육에서는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교재 등 많은 것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역시 이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에 따라 한국어 영역을 구체화하여, 학습자의 목적 달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영역과 개념은 미국 영어교육에서 특수목적 영어 교육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특수목적의 영어란 개념이 제시되면서 자연히 기존에 가르쳐오던 생활 언어 중심의 영어 교육은 일반목적 영어교육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 영어교육은 크게 학문목적과 직업목적의 두 유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흔히 학문목적 영어와 일반목적 영어를 대비하거나 직업목적 영어와 일반목적 영어를 대비하기도 한다.

여기서 일반목적 영어 능력은 '기초적인 대인간 의사소통기술(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BICS)'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문목적 영어 능력은 '학문언어의 능숙도(con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에 의한 학문목적 영어 능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민현식(2008:21~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토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적용을 하면 특수목적 한국어는 한국어가 통용되는 학업, 직업과 같은 전문 분야의 생활을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이라든가, 다양한 특수목적의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한국어로 분류가 가능하다. 일반목적 한국어는 한국어가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양한 일반 목적의 한국어 능력 습득을 위해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한국어로 분류 가능하다. 그러나 취업 목적이라는 구분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직업상의 필요성에 의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취업 희망자와, 직장 근무자 모두를 직업목적 한국어 학습자로 분류하고자 한다. 직업목적 학습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 직업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업의 성격에 따라 원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

2.1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 내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의미한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158,866명으로 전년도 보다 8.7% 증가하였다. 국제화의 진전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27.7%, 결혼이민자가 11.0%증가하였으며 동포 포용 정책으로 방문취업자격자(H-2)가 31%나 증가하였다. 2008년 법무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64,030명으로 2007년(61,029)보다 소폭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각 소속대학교의 언어교육원에 개설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강좌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지만 이 교육은 일반목적 한국어교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생활을 위한 의사소통 정도를 습득할 수 있다. 민현식(2008:19~20)에서는 각 대학 언어교육기관에서 초·중·고급의 한국어교육만으로는 유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유학생 지도를 위한 연구반, 진학반이 설치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수요 조사와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되어 자연스레 이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적 언어 교실에서는 구어가 문어에 우선하므로, 언어의 네 가지 주요 기술 중 말하기 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5]. 이러한 요구가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정숙(2000)은 대학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5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언어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조사 대상자들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가장 필요한 언어 기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고, 이에 대한 설문 결과 언어의 네 가지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필요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쓰기>듣기>읽기>말하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요구와는 다른 양상을

5) 김유정 (1999)에서는 다양한 학습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60% 이상의 학습자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술을 균형있 게 학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 63%, 6급 69%). 또한 기술별 차등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의 순으로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 가운데서도 말하기에 대한 교육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목적의 학습자의 경우 문어보다는 구어에 대한 요구가 많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경화·김정화·최은규 (2000)에서도 특수한 목적의 학습자 군이 아닌,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 군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도 언어의 기술별 중요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중요하거나 필요한 언어 기술이라고 여기는 데 반해, 이 조사에서는 말하기가 가장 낮은 필요도를 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듣기나 쓰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쓰기와 듣기의 필요도가 높게 나온 것은 우리의 강의 형식이 일반적으로 교수자가 주도하는 학습 형태여서 교수 내용을 잘 듣고(이해), 적절하게 필기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이나 과제에서도 쓰기 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유학생들에게는 두 영역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영(2004:139)은 주제 중심 언어교육이 CBI(content-based instruction) 유형의 하나이므로 유학생들이 대학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CBI는 주제 중심 언어교육, 내용 보호 학습(sheltered content instruction), 병존 언어학습(adjust language instruction)으로 구분되는데 내용 보호 학습은 내용 전문가가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 자료를 변형하여 교육하는 것이며, 병존 언어학습은 학생들에게 학문적 내용의 강좌와 함께 이와 관련되는 언어 강좌를 동시에 수강하도록 하여 언어와 내용의 학업 성취를 동시에 꾀하는 것인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내용 보호 학습이나 병존 언어학습이 특수한 교수 자료 구성이나 학계간 협력 등이 필요하여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주제 중심 교육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의 675개 교양과목을 학문 주제별로 분석하여 교양과목의 48%가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관련 과목임을 밝혔다.[6]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의 학문적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담화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식, 즉 학문적 텍스트의 담화 구조와 거기에 사용되는 형태, 어휘, 기능, 격식 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보다 쉽게 학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전략 개발과 학문적 의사소통 전략 개발을 위한 장치와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 및 정보 취득 능력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7]

---

6) 민현식(2007:29)에서 재인용.

7) 김정숙(2003:23~24)에서는 "읽기 기술을 예로 들면,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학문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빨리 읽기, 요점 찾기, 비판적 읽기, 사고하기 등의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2.2 직업목적 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을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을 때 학문목적 집단,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제외하면 가장 크고 중요한 집단이 직업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집단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1996년 OECD 가입으로 외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구민숙(2001), 변혜경, 서정미, 와카츠키 사치코(2002) 등이 있으며 노동자 선교를 위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해 언급한 황성훈(1999)등을 들 수 있다. 김진숙(2003)에서는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중간 이상 관리직 및 전문 기술 인력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로 학습자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이미애(2003)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학습자의 범위, 학습 목표, 교수요목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고, 외국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학습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8] 김보경(2003) 역시 비즈니스 한국어[9] 교육과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 조사, 연구하여 비즈니스 한국어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이 외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중언어학회, 한국어세계화제단 등의 학회에서도 직업목적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보경(2003:65)에서는 국내 한국어교육의 경우 주로 대학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세대학교 한국

8) 정명숙(2003:27)에서 재인용.

9) 김보경(2003)에서는 '취업을 위한 한국어'라고 하면, '취업하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한국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며 '직업을 위한 한국어'라는 용어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여 취업 준비자, 직장인, 기업 경영인 등을 포함하고 영어나 일본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어학당과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직장인을 위하여 저녁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교육과정이나 내용에서 일반 정규 교육과정과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직업을 목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으로는 세종대학교의 ETPK(Executives Training Program in Korea)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기업 경영과 사업 중심의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 세종대학교의 ETPK 한국어 교육과정은 45분을 한 단위로 하루에 7단위를 6개월간 학습하는 과정이다. 교재의 경우 비즈니스를 위한 특수목적의 한국어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일반목적의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교재의 4배에 해당하는 자체 제작된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급 단계부터 비즈니스적인 특성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혜(2003)에서는 직업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다른 유형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 연수생 교육이 있는데 '현지적응 연수'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5시간 정도 교육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국내의 사설 기관들에서 개인 지도나 기업체 위탁 교육 형식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직업을 위한 특수목적의 한국어 교재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직업목적 한국어교육의 경우 교수요목, 교재, 학습자의 요구 등이 파악되지 않은 채 기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유정(199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요구는 취업, 직업, 학문, 일상생활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의 유형과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이나 교사들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목적과 구성이 다양해지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안경화·김정화·최은규(2000)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국어 학습 목적에 대해 취업이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나 직업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습자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해 요구조사를 하고 이를 분석하여 한국어의 교육 과정을 설계, 학습자에 맞추어 필요한 어휘 및 표현 등을 수집하고 목록화하는 교육내용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직업목적의 한국어는 특성상 학습자의 직업군에 따라, 또는 학습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 있다. 이미혜(2003)에서는 직업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세 부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정규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자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자 하는 학습자, 직업과 관련된 연수생, 외교관, 언론인, 군인, 선교사, 한국 주재 회사 근무자, 외국인 취업을 위한 연수생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구체화하여 직업목적 한국어교육 대상자로 영어 원어민 교사도 하나의 독립된 부류로 포함되어야 한다.

직업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크게 비전문노동자와 전문직노동자로 구별한다. 비전문노동자란 고용허가제와 방문 취업제로 입국하는 외국 인력으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상 산업연수(D-3, E-8), 일반외국인력(E-9), 동포(H-2) 자격에 해당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및 32개 서비스 업종에서 생산기능, 서비스. 판매 및 단순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

비전문직 노동자는 1991년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기피업종[10]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연수생이라는 불안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2003년 7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04년부터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을 연수생 신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유입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예정이다. 노동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비전문직 노동자는 40만 명(체류기간을 어긴 노동자 포함)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수적으로 국내에 있는 가장 큰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나 불안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11]

---

11)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는 구체적인 작업현장으로 '가구공장 계통(의자제조/목재/목공).의류공장 계통(양말/염색/지퍼/단추/봉제/비닐), 철사/못/선반/프레스 기공/스프링/주사바늘 공장, 사출기/플라스틱공장, 유리공장, 가족, 가방 공장 등이 있다.

11) 구민숙(2001:16~35)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습 요구는 많은 편이나 이들을 위한 현재의 학습 환경은 아주 열악하여 비전문적인 교사의 자원 봉사, 비좁은 교실, 체계적이지 못한 교재와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국어고용허가제는 2005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선발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EPS-KLT: Employment Permit System-Korean Language Test)'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2005년 8월 17일 이후에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비전문직 노동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을 통과해야 한국 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시험대상 국가와 수험자를 살펴보면 2004년 8월에 시행된 고용허가제에서 인력송출 협정을 맺은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6개국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하며 시험 주관기관은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로 선정되었다.[12] 김유정(2008)에서는 2007년 6월까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된 국가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이었으나, 2008년에 이들 국가에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가 포함된 15개국의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허가제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 시행 개요를 살펴보면 시험대상은 고용허가제에 의거, 국내 취업을 원하는 송출 국가 출신 구직 희망 외국인이고 시험 횟수는 연3회 이상(응시자 추이를 감안하여 조정)실시한다. 비전문직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와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산업 안전, 기업문화 및 예절과 한국의 일반 문화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데 한국어 수업 80시간 내외, 산업안전교육 20시간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각 배점 100점 만점으로 듣기, 읽기의 2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를 한다. 각 영역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여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EPS-KLT의 평가내용 중 공동사항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 산업 현장에 쓰이는 전문적, 비전문적 용어 이해도,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절,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읽기, 듣기 능력, 한국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 등이다. 여기서 요

12)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 실시 기관은 ' 한국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로 지정되었다. 한글학회는 세계 한국말 인증 시험 관리를 담당하고, 한국어세계화제단은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주관하고 시행한다.
2005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선발 기준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의무화됨(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구되는 한국어 숙달도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기간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는 학습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세계화재단 2007년도 태국자료 중 한 한국어교육기관에서는 2007년 제4회 태국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한 86명의 수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수험자들에게 얼마나 한국어를 학습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80시간 이상이 25%,이며, 80시간 이하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수험자는 없으나 20~40시간의 한국어 학습을 했다는 수험자가 42%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결과를 보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습시간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는 수험자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유정(2008)에서는 인력송출을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학원이 생기고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학습하게 되었으나 한국어교사의 질이 떨어지고 시험 합격만을 위한 한국어 학습에 치우쳐 본래의 취지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전문직 노동자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꾸준한 한국어교육을 필요로 한다.

직장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한국어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비전문직 노동자들은 본국에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기초적인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에 왔을 뿐 원만한 대인 관계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작업현장 필수 용어 등에 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전문직 노동자들은 주로 산업현장에서 단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주중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작업장에서 보낸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학습시간은 주말을 선호하지만 막상 주말이 되면 잔업이 생기거나, 휴식을 우선해 출석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 가운데 비전문직 노동자의 한국어교육에 관여하는 기관은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곳으로 많은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어 교육기관도 정식 기관이 아닌 인권 보호단체나 선교 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이런 교육기관도 많은 비전문직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한국어 세계화재단에 등록된 기관은 광주외국인 노동자센터, 외국인근로자선교회 2곳과 문화 연합원 소속의 비아 외국인 학교, 평동 외국인 근로자 센터가 있다. 이외에 교회에서 주말 한글학교

를 운영하고 있다.

비전문직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사의 경우 대부분 무보수의 대학생 자원 봉사자이다. 이들은 책임의식의 결여 또는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비전문직 노동자에게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러 와서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거나 교수법 부족 등의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등 꾸준한 봉사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학 부설 기관이나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교사 확보도 어려운 문제점 중 하나이다.

교재는 특별히 없이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학습 자료로 사용해 오다가 한국산업인력공단(2002)의 <한국어와 한국생활>. '한국국제노동재단(2003/2004)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1-2>, 한국어세계화재단(2004)의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I>, 이미혜(2005)의 <Korean for a good job: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 한국어>, 노동부(2008) <이주노동자를 위한 하하호호 한국어>등 일반목적과는 다른, 비전문직 노동자의 작업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재가 개발되고 있다.

김보경(2003:19)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직업, 업무와 관련되는데 일반적인 비즈니스 표현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고도로 전문적인 내용의 사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학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13)]

이규용(2008:42)에서는 전문 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의 일부, 특정활

13) 비즈니스 언어교육에서 활동과 과제, 상호작용, 주제, 태도나 어조, 상호작용의 양식, 세팅이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활동과 과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누구와 대화를 할 것인지, 학습자들이 업무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학습자와 대화상대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의미한다. 주제는 학습자들이 의사소통하기를 원하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며, 태도나 어조는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국어가 형식적 어조인지, 정중한 어조인지, 강한 어조인지, 완곡한 어조인지를 말한다. 상호 작용의 양식은 학습자들이 그들의 업무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편지, 전화, 이메일, 면 대 면 상활 중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하는지를 의미한다. 세팅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 제한과 같은 것으로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업무상황을 의미한다.

동(E-7)에 해당되는 인력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이전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었다면 최근에는 한국어를 도구로 단기관광을 하기 위한 요구부터 중·장기적으로는 학업을 수행하거나 한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을 하기 위한 한국어 등 '특수목적어' 한국어 학습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위상이 향상되고 국제 교류가 증대되면서 한국계 기업 및 한국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전무직 외국인'들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들은 바쁜 업무 일정 중에도 한국어 학습에 대한 실제적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 학습 과정, 즉 학습자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과 학습자 요구에 적합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유수정(2008:450)은 학습자 중심의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다양한 국적(중국>미국>기타(독일, 베트남, 베네수엘라,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일본>캐나다>인도>필리핀)과 직종(회사원>교사나 교수>엔지니어>공무원이나 외교관>관리자>연구원이나 컨설턴트)의 외국인들이 한국 관련 기업이나 기관과 교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의 고학력 인력들로 이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목적은 '직장에서 수월한 업무수행을 위해서'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한국생활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직장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원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인들과 상호간에 불편함이 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강한 유목적적 동기로 인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대화가 단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구어중심의 생활 언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문법적으로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전문직 노동자 계층과는 달리 생활에 여유가 있고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여가 선용의 요구 또한 강하다. 한국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학습 의지가 강하나 아직까지는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와 적합한 교육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이미혜(2003)에서 국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직업인(전문직)

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목적을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직장에서의 의사소통>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업무수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업무 수행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진숙(2003)에서도 국내 거주 외국인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목적을 조사하였는데, 이 결과가 앞에 언급했던 이미혜(2003)와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진숙에서는 '직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위해서>한국인 또는 한국어를 말하는 외국 친구와 대화하기 위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두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목적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경우 일상생활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보경(2003)에서 비즈니스 기술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상호적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비즈니스 기술 확인 목록

비즈니스 기술	구체적인 활동
말하기	①공식적인 발표 ②비공식적인 발표 ③업무 관련한 교육이나 지시 ④묘사와 설명
상호작용	①회사 방문과 방문자 맞기 ②방문자 안내 ③오락·여흥 ④토론과 비공식적인 회의에 참가하기 ⑤공식적인 회의에 참가하기 ⑥의장 회의 ⑦인터뷰

	⑧협상 ⑨전화
듣기	①발표 듣기 ②강의나 대화 듣기 ③지시 듣기 ④묘사나 설명 듣기 ⑤훈련 듣기
읽기	①서류 ②텔렉스와 팩스 ③편지와 팩스 ④메모와 짧은 보고서 ⑤전문적인 잡지와 교재 ⑥긴 보고서 ⑦계약서와 법률서류 ⑧기술 설명서와 안내서
쓰기	①텔렉스, 편지, 보고서 ②메모와 짧은 보고서 ③긴 보고서와 전문적인 잡지의 기사 ④다른 사람의 보고서와 편지 편집하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비즈니스목적 한국어의 기술 부분은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반 사무직 근무자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나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는 해당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 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 비즈니스 목적의 한국어와 일상적인 생활한국어 부분은 공통사항이 있어 함께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나, 직업목적 한국어 부분의 경우는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 맞는 교재가 필요하다. 직업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경우 학습자의 직장, 직위, 업무환경이 달라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요구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는 업무환경이 학교와 학원으로 나누어지고 근무지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업무 활동이나 동료 교사를 부르는 호칭, 직위, 업무 등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들만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건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어적 요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목적의 한국어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목적 한국어교육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바라기 어렵다. 비즈니스 한국어의 경우는 이 외에도 한국의 사업 풍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는 한국의 학교체계, 한국의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3.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앞서 언급했듯이 직업목적 한국어학습자의 경우 학습목적에 의해서 더 구체화된 영역별 학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직업목적 한국어교육 중 사무직 근무자에 대한 연구[14]는 교재개발, 요구분석 파악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다양한 전문직 노동자의 요구를 세분화하여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연구 대상도 전문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단위를 이루고 있는 사무직 근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만든 교재나 교육목표는 영어 원어민 교사 집단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들이 전문직 노동자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학습 요구 분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는 '직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한국인 동료 교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활한국어에서도 높임말 사용에 대한 요구와 심미적 한국어 학습을 요구한다. 또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실 용어, 한국의 예절, 학사일정에 따른 어

14) 본 논문의 서론 1.2 연구대상 및 방법, 참고.

휘와 뒤 배경이 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3.1.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의 실태

광주교육청에 소속된 국·공립학교의 영어 원어민 교사는 2009년 현재 130여 명이다. 이 외에도 사설 학원이나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는 영어 원어민까지 포함다면 영어 원어민 교사의 숫자는 5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매년 3, 9월에 30~50명(평균 숫자에 대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수요에 따라 30~50 사이에 변동이 있음)[15]의 원어민 교사가 배정되고 있고,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등은 사설 기관을 통해 상시로 영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의 실태를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교육기관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 보면, 우리 지역의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곳(여성발전센터와 시민단체)과 비전문직 노동자를 위한 곳(시민단체,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유학생을 위한 각 대학의 언어교육원등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대체로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편이어서 결혼이주 여성이나 한국의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고자하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을 원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교육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와는 달리 영어 원어민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은 광주광역시의 교육위탁을 받은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단 한 곳이다. 이곳은 국·공립학교, 즉 교육청 소속의 원어민 강사들만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어서 사교육장의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그들만을 위한 한국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이 기관에서 영어 원어민 대상 한국어교육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한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영어 원어민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위탁하게 된 배경을 보면,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개별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특별 강좌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전남대

15) 광주광역시 교육청 원어민 교사 담당자와 면담 내용.

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원어민 강사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위탁하게 되었다.[16] 전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영어 원어민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 이름은 '원어민을 위한 한국어강의'이다. 전남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한국어강좌는 교육청에서 임용한 초· 중·고등학교 교사들만이 대상자로 2009년 4월에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신설이 되었고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목적이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전남대학교에 교육 모델, 계획 등 수행 전체 내용을 모두 위탁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 한글 깨우치기, 한국어를 이용한 일상적인 담화, 생활기능과 학습자가 원어민 교사이고 근무지가 학교라는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교실 상황, 교무실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대화,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했다. 수업은 전남대학교 언어 교육원 소속의 한국어강사들이 진행을 했는데, 이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진들로서 수업경험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수업시간은 일주일에 2회 (화, 목 2시간) 9주에 걸쳐서 교육했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원어민 교사의 한국어 학습 경험과 한국어 능력을 감안하여 2개 반으로 분반하였다[17].

이 외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있다. 이 기관은 NGO단체로 외국인을 위해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광주·전남지역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6월 광주시민연대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광주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였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정보와 서비스 제공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함과 더불어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는 영어권 원어민 강사들에게 국제교류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주뉴스'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신문을 각각의 학교에 보내거나, 원어민 교사들의 입소문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활발한 홍보를 하고 싶어도 교육청 소속 원어민 교사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공립학교로 광주 뉴스[18]를 보내는 것이 전부이다. 이 신문도

16) 광주광역시 교육정책과 국제 교육 팀 직원과 면담 내용.
17) 전남대학교 '원어민을 위한 한국어강의' 담당자 전화 면담 내용.
18)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자 신문으로 외국인들과 자원 활동가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학교 측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 안내를 해 주지 않으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 스스로 광주국제교류센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설 학원의 원어민 교사의 경우는 대다수가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이 기관을 접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크게 8개의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한국어교실 운영이다. 이 한국어교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로 5단계로 나눠진 주중반과 2단계로 나눠진 토요일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중반은 일주일에 2회 하루 2시간 단위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주말반의 경우 매주 토요일 2시간 단위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주중반과 주말반은 교재와 수강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 교실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한국어교실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의 대부분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베트남, 남아공, 인도, 중국, 네팔 등 점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수강하고 있다.

광주국제교류센터 한국어교실에서는 순수자원봉사자로 한국어교사를 충당하고 있다. 처음시작단계에서는 자원교사가 없어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책임감의 결여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서 자원교사의 자격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으로 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자원교사들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교육대학원생 2명, 일반대학원(국어전공)2, 한국어양성과정 수료 2명 등이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을 한국어자원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그러나 센터 자체적으로 한 학기 종강회의 이외에는 교사들 간의 교류가 없어 정보공유가 힘들다. 또 기관 자체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개성대로 수업이 진행되며 통일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현실이다.[19]

이 신문에서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교실 정보, 한국어 소개, 광주지역의 유용한 생활 정보, 이 지역행사 등을 담고 있다.

19) 예를 들면 초급 1,2를 학습하고 다음 단계인 중급 1,2를 학습할 때는 교재가 달라지는데, 이들 교재는 전혀 다른 양상의 구성을 이루고 있어 학습자가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전 단계 수업을 했

교재 역시 주중교재와 주말교재가 다르고 각 단계 간의 교재의 통일성도 충분하지 않는 등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일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자원봉사 교사들은 교사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각 단계간의 연계성과 교수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사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인력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3.2.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필자가 한국어 교사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한 광주국제교류센터의 경우 일상생활 한국어수업 시 일반 대학에서 나온 교재로 1주일 2회 2시간 단위로 수업을 진행해 보면 초급 1의 책을 끝내기 위해서는 7주를 한 학기로 2학기에 걸쳐 수업이 진행된다. 즉 4달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한다. 영어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를 학습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이라고 보면 이 시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외국어를 학습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일반목적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면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만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한국문화의 영역을 한 단원이 끝날 때 읽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교재로는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는 힘들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과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이들은 문법이나 어휘에 관한 질문보다는 한국문화에 대한 질문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해결에 필요한 대화를 학습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다. 그리고 근무지인 학교 생활 용어와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호칭, 학교 제도 등 본인의 직장생활에 상용하는 어휘나 이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영어 원어민 교사의 요구와 이들의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의 경우 대학진학 후 전공에 따른 교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

던 교사는 초급임을 감안하여 영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의 교사는 한국어 사용만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당황하고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기도 한다.

비전문직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역시 이들이 작업장에서 쓸 수 있는 어휘와 직장 생활에서 겪는 불이익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까지 곁들인 교재가 개발되어 있다. 직업 목적 한국어 교재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 이 교재의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 내용 이외의 내용은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수목적 한국어의 경우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재와 문화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그 범위가 아직까지 영어 원어민 교사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 위치한 몇몇 대학에서 야간에 직장인을 위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지만 20)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 국·공립 교육기관 근무자만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수강이 가능하고 오후에 출근을 하는 사설 학원 강사들의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오전시간 수업 받는 것을 선호하는데 일반 대학 어학원의 경우 이 시간에는 일반 목적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학문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한다. 그런데 일반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수업목표뿐만 아니라 하루 수업시간, 수업이 진행되는 학기, 수업료 등이 영어 원어민 교사 집단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시 정리해 보면 영어 원어민 교사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교재개발도 시급하고,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한 교육기관도 필요하지만 아직 그 무엇도 갖추어져있지 않아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 교육방안

최근 들어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습 대상을 고려한 구체적인 영역까지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 비전문직 노동자를

20) 김보경(2003:65)에 의하면, 국내 한국어교육의 경우는 주로 대학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과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직장인을 위하여 저녁 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교육과정이나 내용에서 일반 정규 교육과정과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위한 것이거나 전문직 노동자의 경우 일반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을 뿐이다. 전문직 노동자의 경우 학습자의 변인에 따라 아주 다양한 양상의 교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문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직과 외교관, 군인 등 직업에 따라 직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 목적과 학습자의 요구와 희망이 차이를 보일 것이다.

외국어교육에는 다양한 변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 변인들을 고려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 변인을 편의상 상위 변인과 하위 변인으로 나누었을 때 아직까지 한국어 교재는 이 하위변인에 해당하는 세부사항까지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김보경(2003)에서는 저녁시간에 여유가 있는 몇몇 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설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기도 하는데, 이 수업은 일반목적 한국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직장인의 비율에 따라 교사가 추가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전화예절, 인사 등을 제공할 뿐 다른 교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목적 한국어를 위해 나온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직장 상황은 대부분 일반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상황과는 적합하지 않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 등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선택의 폭이 아주 좁다. 그러나 영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되는 원어민 교사의수는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업목적 한국어에서 비즈니스 한국어의 경우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교재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 근무하는 곳이 학교와 학원 두 곳으로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변인은 거의 비슷하다. 이 장에서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한국어 교육에 대한 원어민 교사의 요구 조사

김보경(2003:28)에서는 최근 교수법의 흐름이 학습자가 교수-학습의 주체가 되어

야 함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설계 시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요소를 학습자의 요구분석으로 꼽았다. 특수 목적 언어 교육과정 설계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도 바로 학습자의 요구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바, 학습자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국적, 모국어 문화, 교육정도, 가정환경, 직업, 나이, 사용 가능한 언어 등과 같은 학습자의 배경 정보에서 출발하여 목표 언어를 말하고 쓰고,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능숙도 및 교실 외의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목표 언어를 사용하고 접하게 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는 방법은 설문지, 인터뷰, 관찰하기, 평가 등 다양하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설문지 조사 방법이다. 그 외에도 개별면담이나 교사가 학습자를 관찰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한국어 교사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들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외국인들에게 소정의 수업료를 받고 교재는 학습자 본인들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수소문을 하고 친구에게서 정보를 얻어 이 기관을 찾은 만큼 한국어에 대한 열정도 있고 욕심이 많았다.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이들은 한국에서 살기 위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고 답하였다. 더 구체적인 설문지를 작성하기위해 6개월 이상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몇몇 영어 원어민 교사와 개별면담을 실시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했다.

설문기간은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3주에 걸쳐서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교나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 50부를 배부하였으나 34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은 사적인 사항은 모두 배제하고 한국어와 관련된 문항으로만 작성을 했고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영어 번역을 함께 제시하였다. 설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영어 원어민 교사의 한국생활에 한국어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셋째,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 적절한 한국어교육의 시기와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설문지는 숫자등급 척도와 참·거짓 문항, 선다형 문항을 주로 사용하였고 여기에 구체적인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여 응답자가 이유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시행방법은 제2언어 연구에서 편의 편집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필자가 자원교사로 활동 중인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배포에 앞서 설문의 목적을 학습자의 모국어(영어)로 구두 설명을 하였다. 그 후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작성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설문지 작성이 끝날 때까지 작성자들과 같은 공간에 대기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끝난 후 성의 있게 작성한 응답자들과 좀 더 자세하게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4.2. 한국어교육에 대한 영어 원어민 교사의 요구 분석

김보경(2003)에서는 요구 분석에 있어 학습자 중심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그들은 학습자의 요구를 목표 요구와 학습 요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목표 요구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 언어를 왜 배우는가?
* 어떻게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 관련된 분야의 내용은 무엇인가?
* 학습자는 누구와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 어디에서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 언제 언어가 사용될 것인가?

둘째, 학습 요구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들이 과정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 학습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배울 것인가?
* 어떠한 자료가 유용한가?

* 학습자가 누구인가?
*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서 목표 요구란 '목표 상황을 위해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학습요구란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21]

본 연구는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의 학원, 학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 한국어에 대한 요구, 한국어 학습의 이유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교사의 한국어 학습기간을 조사하였다.

<표 2> 영어 원어민 교사 한국어 학습기간[22]

한국어 학습기간	빈도(명)	백분율(%)
3개월 이하	16	47
6개월~9개월	11	32
9개월~1년	2	6
1년 이상	5	15
계	34	100

영어 원어민 교사 한국어 학습기간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47%가 3개월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초기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한국어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 기본 계약 기간이 1년이다. 이 1년이 지난 후 원할 경우 1

21) 김보경(2003:30) 참조.
22) 백분율 계산 시 반올림 하였음.

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개별면담결과 일반적으로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한국에서 생활한 지 6~9개월쯤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학습기간이 9개월에서 1년가량의 학습자의 비중이 가장 낮다. 학습기간 1년 이상의 경우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일하기 편해서 등의 이유로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를 알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모든 항목에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밖의 이유가 있다면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였다.

<표 3>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복수응답)>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	빈도(횟수)	백분율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24	37
한국문화를 알기 위해	13	20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12	18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16	25
계	65	100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로는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37%)>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25%)> 한국문화를 알기 위해(20%)>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18%)'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항목을 37%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였는데 이는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사항들도 큰 범위 안에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항목에 포함 될 수도 있

다. 특이한 것은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 항목이 25%로 높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심층 면담을 한 결과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나 학원의 경우 한국인 교사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23]그런데 영어교사를 제외한 일반 교과목 교사들은 주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영어를 잘 하는 한 명의 교사가 동료 교사의 이야기를 통역을 해주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한다. 영어 원어민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다고 한다.

이 밖에 기타 의견을 보면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3명),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4명), 학생·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4명), 한국에서 더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1명), 한국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3명)'의 내용들이 있었다. 이 기타의 내용에서도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의 항목의 비율이 높은데, 이 항목 역시 직장에서의 한국어가 필요함을 말한다. 이 설문지 문항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 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국에서 생활 한국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위한 한국어교육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항목을 통해 직업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다음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 이외에 어떤 부분에 가장 흥미를 느끼는지 알기 위한 항목이다. 흥미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재미가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초급 단계에서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흥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3) 국·공립학교의 경우 외국인 교사가 영어 원어민 교사 한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원의 경우 영어 전문학원은 영어 원어민 교사가 많게는 5명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인 교사의 수가 월등히 많다고 한다.

<표 4> 한국어학습에서 관심 분야 선택-(복수응답)

관심분야	빈도(선택횟수)	백분율(%)
문법	9	11
듣기	9	11
읽기	15	18
말하기	26	30
쓰기	7	8
문화	19	22
계	85	100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말하기’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로 한국에 와서 바로 생활을 하게 된다. ‘길 묻기, 도움을 요청하기, 음식 주문하기, 인사하기 등’의 항목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항목으로 모두 ‘말하기와 관련된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말하고자 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친교를 위한 대화보다는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말하기‘를 필요로 한다. 이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물을 것들이 많고 그만큼 한국생활 초기에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문화’와‘읽기’ 이다. 읽기는 말하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을 못하더라도 간판을 읽을 수 있다면 불편함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문화’ 항목의 경우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은 한국에서도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학교와 학원이라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학교나 학원은 한국의 교육기관으로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 항목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표4>에서 한국어부분 이외에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관심을 보인 문화영역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실시한 질문이다. '문화'는 그 범위가 넓어 몇 가지 항목만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영역이지만 사전 면담을 통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원하는 문화 분야를 선정하여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표 5> 한국어 이외의 관심분야-(복수응답)

관심분야	빈도(횟수)	백분율(%)
한국인의 예의범절	13	25
한국인의 문화	15	28
한국의 역사	10	19
한국의 음식	10	19
아름다운 여행지	5	9
계	53	100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인의 예의범절'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많은 한국인들이 모인 집단인 학교와 학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동료교사와 학생들을 마주하는데 호칭과 존칭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습관이 된 비언어적인 행동 때문에 무례하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많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의도하지 않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오해를 산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예의에 관해 알고 싶지만 예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데, 가령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에서는 꼭 한국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독도 문제라든지 자칫 이유를 모르고 발언

을 했다가 눈총을 사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국의 음식’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데 큰 즐거움이기도 하면서 큰 어려움이기도 하다. 한글을 읽지 못하고 음식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지도 어렵고, 음식의 맛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진만 보고 주문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독특한 맛을 내는 음식이 많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처음 맛을 보면 자극적인 매운맛과 젓갈 맛 등에 거부반응을 보이기 쉽다. 외국인들이 이 맛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우리 음식을 맛보게 수 있도록 하면 거부반응 없이 우리 음식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에 대한 안내와 외국인들 입맛에 맞는 음식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문화나 예절, 음식, 관습, 비언어적 행위의 의미, 생활하면서 생기는 궁금한 점 등 많은 것들에 대해 정보가 없는데 이 부분에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사전 면담조사를 통해 몇 가지 문항을 만들어 제시하여 알아보았다.

<표 6>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방법-(복수응답)

해결방법	빈도(횟수)	백분율
책이나 인터넷	22	42
한국인 친구나 한국인 동료교사	21	40
한국어 수업	7	14
원어민 친구	2	4
계	52	100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 한국문화, 생활에서 오는 의문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책이나 인터넷(42%)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 친구나 한국인 동료 교사(40%), 한국어 수업에서(14%), 원어민 친구(4%)순으로 나타났다. 궁금증이 생기면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의문사항들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의문사항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인터넷이나 일반 책의 자료가 부족하고 한국어 교재에서도 각 교재마다 다루고 있는 문화 영역이 다르다. 내용도 일반적인 문화 항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하기는 힘들다.

초급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서 어떤 문화 항목을 다루고 있는지 몇몇의 교재에 나타난 문화 소개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초급 단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소개의 비중 24)

교재	대상 학습자	문화소개의 비중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초급과정	각 단원의 중간에 '쉼터'를 두어 사진과 함께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함. 모두 15개 단원 15개 항목
선문대학교 '한국어초급1', '한국어 초급2'	초급과정	각 단원의 뒤에 문화 소개란을 둠. 한국어와 영어(그 밖의 외국어)로 설명하고 그림을 곁들임. 모두 20개 단원 18개 항목
한국어교육연구센터(KLEAR) 'Integrate d Korean;B eginnin g 1)	초급과정의 영어 학습자	각 단원의 앞에 학습 목표를 설정하면서 문화 이해를 과제/기능, 문법과 함께 제시함. 그리고 각 단원의 뒤에 영어로 문화를 소개함. 특히 여기에서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2~3개 항목씩을 소개함. 모두 7단원 18개 항목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1'. '서강한국어 2'	초급과정	권두에 실라버스를 제시하면서 문화 항목란을 설정함. 각 단원의 뒤에 문화 해설란을 두어 영어로 설명함. 모두 18단원 17개 항목
경희대학교'한국어 초급 1'. '한국어 초급 2'	초급과정	일부 단원의 뒤에 문화해설란을 두어 영어(1권), 한국어와 영어(2권)로 설정함. 모두 45개 단원 13개 항목
		총105단원, 81개 문화 항목

한국어 초급교재의 경우 문화항목을 주로 각 단원의 중간이나 뒤에 문화 항목란을 설정하여 각 단원에 따라 적게는 13개 항목에서 많게는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에서 바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24) 조항록. 강승혜(2001:499)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의 개발" 한국어세계화재단.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이 많다. 교재만으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에는 문화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폭이 넓지 않다.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들이 책이나 인터넷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는다면 다행이지만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 본다'와 같은 경우 그 친구가 문화에 대해 주관적인 입장으로 사소하게 흥미위주로만 설명을 할 가능성도 많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과의 개별면담에서 어떻게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느냐고 질문한 결과 영어 원어민 교사의 한국인 친구는 학원이나 학교 동료 교사,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술집에서 만난 연수나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등이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한국어에 대한 질문이나 한국어 연습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어 원어민 교사의 한국인 친구들은 본인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연습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영어 원어민 교사의 질문에는 시간을 두고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영어 원어민 교사와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를 듣고 그 뜻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한국 문화의 어두운 부분들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미화시켜서 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인 정보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여건이 충분하지가 않다. 한국어 교사에게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꽃샘추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영어 원어민 교사가 있었다. 한국인 친구는 꽃이 피는 것을 시기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현상을 꽃샘추위라고 설명을 했다고 했다. 이 설명은 한국인이 우리가 듣기에는 재미있는 대답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한국의 기후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예는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생활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어 수업을 할 때 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객관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사들에게도 하나의 지침서나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를 언제 자주 사용하는지에 관해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직장과 일상생활로 나누어 각각의 어떤 상황에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대답은 선다형이 아니고 원어민 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황 서

술하도록 하고, 나중에 같은 상황을 모아 정리 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8> 한국어 사용 상황

생활에서 한국어 사용상황	빈도(명)	백분율	직장에서 한국어 사용상황	빈도(명)	백분율
택시나 버스 이용	7	26	학생들과 이야기 할 때	5	38
물건 살 때	9	33	동료교사들과 이야기 할 때	4	31
식당에서 주문하기	8	30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4	31
친구와 이야기 할 때	3	11			
계	27	100	계	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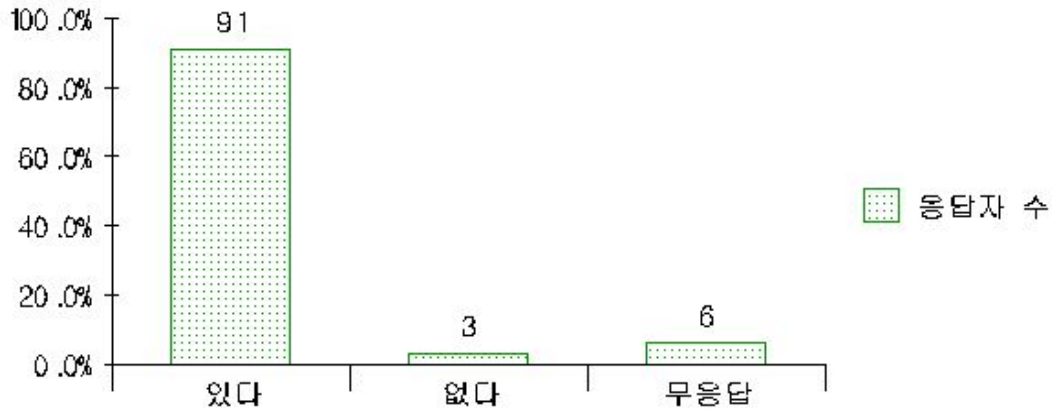
일단 생활과 직장 2가지로 나누어 상활을 봤을 때 직장보다는 생활에서 훨씬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생활에서도 기초적인 물건사기 주문하기 등에서 그 사용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초급 영어 원어민에게 필요한 생활한국어 부분을 짐작 할 수 있다.

직장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적으나 주로 학생들과 이야기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영어만으로 진행되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어 단어 하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하였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어를 학문 목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생활한국어 정도를 원하고 있다. 직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3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직장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본인이 한국어를 잘 몰라서 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장 내에서 영어 사용을 권하기 때문이라는 답도 있었다. 직장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

과 수업 중에 한국어를 간단한 단어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럴 때 학생들과의 유대감이 형성이 되어 학생들이 영어 시간을 덜 부담스러워 하고 참여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도 한국어를 사용하면 직장 생활이 좀 더 편안해 진다고 했다. 이 경우는 직장 동료가 한국인으로 영어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인데, 학원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영어 교사들이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어 교사를 제외한 많은 타 과목 교사들은 영어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한국어로 간단한 질문을 하면 다들 호감을 가지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본인들도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다음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몰라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들이 불편을 겪은 문항 중 중복횟수가 많은 문항에 관한 내용을 한국어 학습 초기에 제시한다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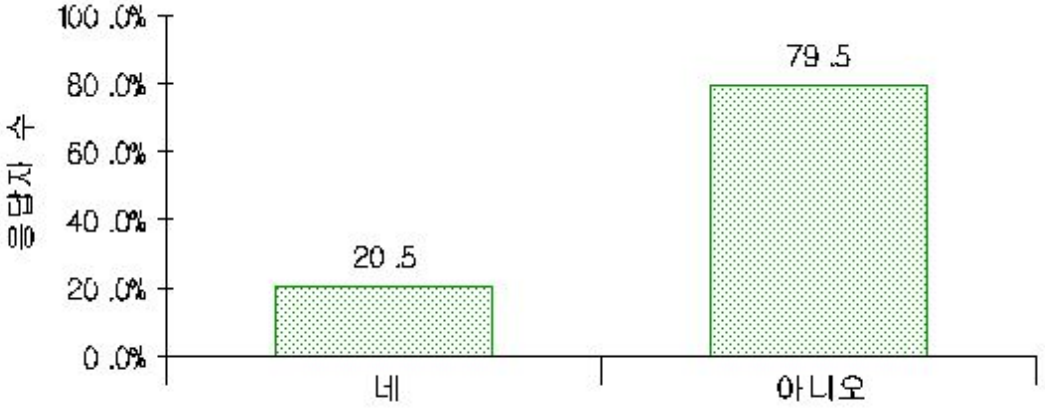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몰라 불편을 겪은 경험 여부

설문에 응한 91%의 응답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몰라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이 불편을 겪은 상황을 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직장에서의 불편함으로 나

누어 정리 해 보면 생활에서는 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다.[25] 직장생활에서는 직장 한국인을 대하는 예절부분을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한국의 교육 스타일과 영어 원어민 교사의 모국의 교육 스타일에서 오는 차이점, 예를 들면 학생 체벌, 학생들의 태도, 학부와 교사와의 관계 등 직업적인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지도할 때는 한국의 학제나 한국 학교의 월별 행사와 그 의미 등에 관한 항목이 필요하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본인들이 한국을 희망하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친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공부했을까? 만약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한 문항이다.



[그림 2]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학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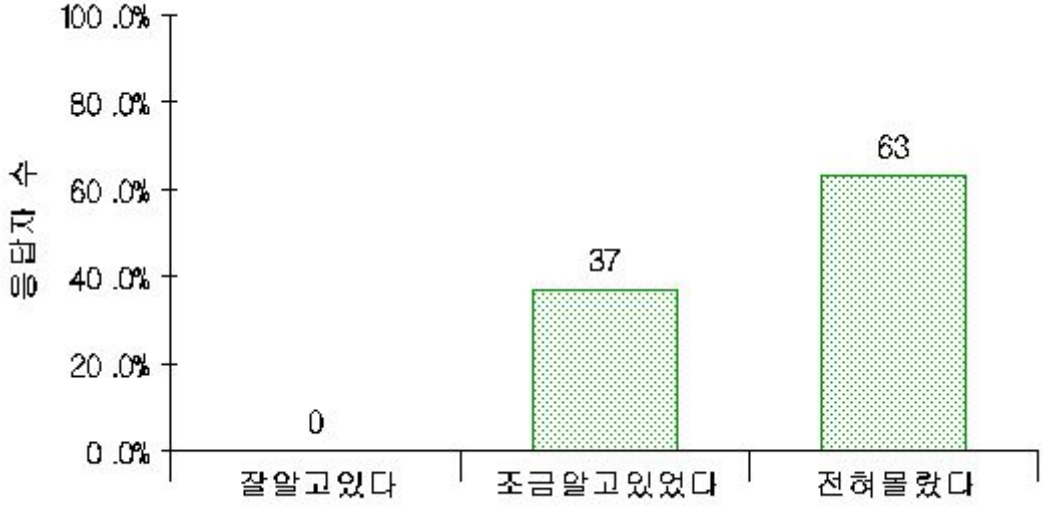
34명 중 27명(79%)의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고 한국에 왔다.

25) '한국어를 몰라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세히 써 주세요.'에 대한 대답들에는 '한국어를 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식당에서 메뉴를 읽거나 주문을 할 수 없다/길을 찾기 힘들다/물건을 구입할 때 힘들다/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힘들다/여행하기 힘들다/항상 불편하다/한국어로 물어볼 때 대답하지 못해 기분이 안좋다/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등등이 있었다.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 '배울 곳이 없어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곳도, 한국어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고 한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7명은 학습 내용이 간단한 인사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는 경제나 사회에 관한 것뿐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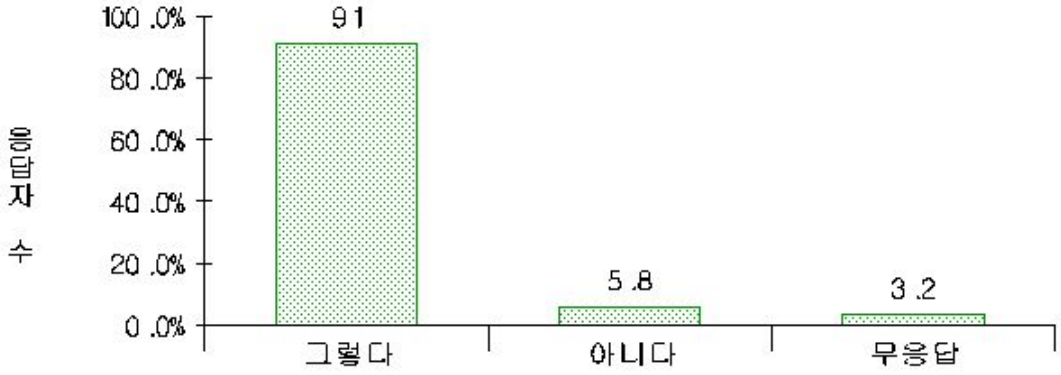
위의 문항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 오기 전 모국에서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그림 3]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 숙지 여부

이 문항에서는 한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가 37%이고 전혀 몰랐다가 63%인 반면 잘 알고 있었다는 한명도 없었다. '조금 알고 있었다'의 경우도 월드컵 4강 진출국, 분단국가 등의 내용으로 실제 한국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입국하느냐'는 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나 한국문화 전반에 대해 거의 무지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막상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에오기 전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울 기회가 필요한가'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을 통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이다.



[그림 4]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 기회 필요 여부

'한국에 오기 전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필요한가'에 응답자 중 '그렇다'가 3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로 '한국어를 미리 조금이라도 알면 한국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다',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의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정보가 없고 방법을 몰라 한국어나 문화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글을 읽을 줄 모르고 간단한 한국어도 하지 못해 모두 다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정착 초기 한국에서 생활할 때 기초적인 한국어를 안다면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할 것이고, 그리기 위해서 한국어를 모국에서 숙지할 수 있다면 한국

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를 학습한 후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느끼는지'에 대한 문항이다.

<표 9> 한국어 학습 후 큰 변화-(복수응답)

한국어 학습 후 변화	빈도(횟수)	퍼센트(%)
생활이 편해짐	25	40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음	17	27
직장생활이 편해짐	14	22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편해짐	7	11
계	63	100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모든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은 앞에서 한국어를 몰라 불편했을 때 겪었던 주문하기, 길 찾기, 대화하기, 물건사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한국문화를 자연스레 조금씩 알게 되고 그로인해 한국인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어 한국생활에서 이질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직장에서도 한국어를 알면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한다.

다음은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기관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나는 묻는 문항이다.

<표 10> 한국어 학습 기관을 알게 된 경로

알게 된 경로	명	퍼센트(%)
친구를 통해서	24	70
광주 뉴스(신문)을 통해서	6	18
E-mail을 통해서	2	6
웹사이트를 통해서	2	6
계	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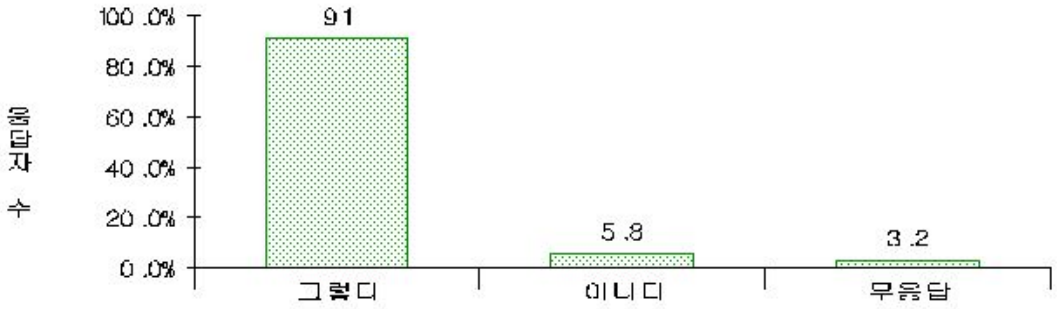
이 문항의 응답자 중 70%의 학습자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 지역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친구를 통해서 만나 서로 친구가 되고 정보를 공유하곤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영어원어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1차례 국·공립학교의 원어민 교사를 상대로 한국어 반을 개설한 적이 있지만 이는 한번에 머물렀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교육청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건의 했다는 사실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 영어 원어민 교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준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어떻게 한국어교육 기관을 알았을까? 학교로 보내는 광주메일을 학교에서 소개해 주어 왔다는 학습자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적이 있거나, 학습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의 한국어교육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교육기관도 거의 없고, 있는 교육기관도 학교나 학원,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물어물어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현실로 보아 한국어 센터에 오지는 않지만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잠재된 원어민 교사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수준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홍보한다면 우리지역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 될 것이고 원어

민 교사들의 삶도 훨씬 윤택해질 것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다른 동료 교사에게 한국어 학습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동료 교사들에게 한국어 학습 추천여부를 묻는 문항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한국어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동료교사에게 한국어 추천 여부

동료교사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추천여부를 묻는 문항에 91%가 '그렇다'고 응했다. 왜 그런가에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편하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즐겁다', ' 한국인을 이해 할 수 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한국어를 배운다. 그러나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 적합한 한국어 교재가 없어 일반목적 한국어교육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설문을 통해 원어민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꼈다.

앞의 질문 결과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를 언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관한 문항이다.

<표 11> 한국어교육의 시기

한국어 교육시기	빈도(명)	퍼센트(%)
한국에 오기 전	17	50
한국에 오자마자	15	44
한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한 후	2	6
필요 없다	0	0
계	34	100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0%가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오자마자 44%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적응한 후가 6%이다. 이 문항을 통해서 영어 원어민 교사 대상 한국어 교육시기가 되도록 한국생활을 시작하기 전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은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한국의 예절, 한국의 학제, 한국의 학교 등을 포함한 문화교육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기존의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막상 한국에서 초기 정착시기 생활에 불편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영어 원어민 교사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과 본국에서의 사전 교육을 위한 소책자 개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4.3.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한국어교육의 방향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결과 분석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나 한국인의 인사법, 예절, 기후, 한국인의 습성 등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바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국공립학교의 교사나, 사설 학원의 교사나 다를 바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한국어교사를 파견하는 단체인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한국어

교사들에게 그들이 근무할 국가에 대한 정보와 언어교육을 일정 기간, 일정한 수준으로 교육 시킨 후 각 국가로 파견을 한다. 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어교사 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국가에 갔을 때 이미 그 국가의 생활 습관이나 기후, 관습, 예절 등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파견되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만 극복을 하면 문화적인 충격이 크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국가로 파견된 후 곧바로 학교에 배정되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7주간의 현지 적응 훈련과정(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있음)을 통해 현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친다.[26] 이런 경우 교사는 외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 문화에 대한 이질감도 적어서 문화적인 충격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한국어교사의 경우 순수자원봉사가 그 목적이나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직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외국에서 현지 언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과 근무환경 등은 비슷하다.

하지만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출근을 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이루어지지 않고 동료 교사의 도움이나 함께 온 원어민 친구들과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 언어가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 사기조차 힘들다. 어디에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지, 어디에 식당이 있는지, 어떻게 주문을 하는지...등등에 대한 안내도 없고 언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험적이고 당황스러움 그 자체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초급반 학생들의 경우 '가나다'도 모르는 상태지만 생활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유난히 강한데, 얼마에요? 00에 가주세요. 등 아주 기초적인 회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또 한국의 학교에 대한 질문도 많으며 예의에 관한 질문도 많다,

소풍, 체육대회, 수학여행, 시험, 교복착용, 두발 단속, 수업시간, 수업 스타일, 스승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학생과 교사의 관계 등 많은 것들이 본인의 모국과는 다르다. 때문에 여기에서 의문이 많고 이것은 직장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할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난처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한

26)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으로는 버스노선, 시장의 위치, 마트 이용방법, 일할 기관의 위치와 성격에 대한 안내, 현지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교육, 일할 기관 방문, 동료교사와 미팅, 학교 시스템에 관한 안내, 현지어 실습을 위한 식당 견학, 현지 국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 견학 등등이 있다.

국어 학습을 시작하면서 한국어수업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며 이해를 하곤 한다.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도 한국에 오기 전 또는 한국에 입국한 후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약간의 교육은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책자 구성을 생각해 보았다.

이 책자의 내용에는 아주 기초적인 한글 읽기 부분도 수록 되어야겠지만 한국문화 교육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어교육의 양적인 팽창은 자연히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늘어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자의 노력은 개별 교육가관 별로 또는 교수자의 연합 형태로 그 성과들을 속속 산출해 내고 있다. 교재의 편찬, 교수법의 개발이 상호 경쟁적 또는 협동적 과정을 거쳐 양산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계의 이러한 양적. 질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문화 교육의 강조이다. 새로이 개발되는 교재, 교수법에 거의 예외 없이 문화 교육항목이 도입되고 있다. 조항록(2000)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사고와 행위 양식을 담고 있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며 언어는 바로 그러한 문화에 기반하야 구성원의 문화적 양태를 담고 있는 가정 적절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언어 교육은 바로 문화 교육이며, 언어 학습은 바로 문화의 학습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언어 능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앞서 설문을 통해 파악한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요구에서도 일반목적 생활한국어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어 문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그리고 이 문화적인 요구는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교실 수업에서 인쇄문자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영성매체나 그림, 사진 자료 등을 이용해서 훨씬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교재에 관한 설문을 살펴보고 교재에 나타난 문화교육 부분과 여기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들에게 부족한 점을 보안하고자 한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해 두 가지로 명확하게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차이점이 명확한 것은 설문 집단이 교재에 의해 크게 두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만족한다고 대답한 집단의 교재는 한 대학의 교재로 초급교재도 초급1(A), 초급

1(B)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휘도 초급자에게 적합한 수준이고,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며[27] 문화소개의 비중이 권두에 실라버스를 제시하면서 문화 항목 란을 설정하고 각 단원의 뒤에 문화 해설 란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집단의 교재는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으로 교재의 구성이 학문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문법 위주의 교재이다. 이 교재는 구성은 탄탄하지만 오랜 기간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할 학습자들에게 적합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초급에 포함하고 있는 어휘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언어들이다. 이렇게 어려운 어휘나 표현들, 높임법, 등을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주어 흥미를 떨어뜨리게 된다. 게다가 초급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화항목과 일상생활에서 오는 궁금증을 풀어줄만한 문화항목에 대한 비중이 아주 미비하다.

27)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대신에 '안녕하세요?' 등의 문법적인 표현보다는 일상생활에 당장 활용이 가능한 회화적인 표현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표 12> 초급단계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화항목[28)]

교재	문화 항목의 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한국인의 이름, 숫자4, 한국의 옛날 집, 가족의 호칭, 주부들의 주말, 한국과 세종대왕, 가마, 돌과 회갑, 태권도, 식사예절, 서비스전화번호 안내, 백의민족, 옛날의 일기예보, 바람맞다, 한국인의 여가 활동
선문대학교 『한국어 초급1』, 『한국어초급2』	태극기/애국가/아리랑/,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기후, 한국사람과 수, 백일/돌/환갑, 한국음식, 생활 속의 미신, 한국의 화폐, 호칭, 가족관계, 십장생, 태권도, 예의바른 한국생활, 한국의 결혼, 한국지도와 관광지, 한복, 근무시간, 재미있는 의성어
한국어교육연구센터 (KLEAR) 『 Integrate Korean; Beginning 1)』	인사법, 한국의 이름, 사회위계와 호칭, 명함교환, 친구/친지 소개, 사회위계와 종결형, '우리' 개념과 사용, 가족호칭의 확대 사용(친구/친지 등), 태극기, 다양한 인사말(어디 가세요?), 존대 표현과 반말(인사말), 주거지 명칭과 표현방법, 주택의 종류, 날짜(연, 월, 일), 쓰기, 달력(음력과 양력), 돌과환갑, 서울, 서울의 지하철 체계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1』 『서강한국어 2』	한국인의 이름, 한복, 호칭, 한국 소개, 한국의 주요 전화번호, 한국인의 사적 질문(나이 묻기 등), 한국의 지하철, 신촌과 서강대, 서울시 역사 문화 관광, 버스전용차로, 휴일과 고속도로, 한국의 시장, 소주를 즐기는 나라, 돈 지불 풍습, 한국식 잔치, 김치, 집에 들어가기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 1』 『한국어 초급2』	인사예절, 식사예절, 한국의 상차림, 한국의 공휴일, 한국의 주요 전화번호, 한국의 명절, 한국인의 몸짓언어, 한국의 전통적인 미인, 서울의 박물관, 사물놀이, 돌잔치, 지하철 노선표, 한국의 가족
	총81개 항목

위의 표를 보면 이 교재들은 모두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순수 전통문화를 비교적 전통에 기반한 현대 일상문화, 비교적 순수 현대문화가 각 교재

28) 조항록, 강승혜(2001:500) "초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수 요목의 개발"

별로 다른 비율로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교재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항목들은 한국인의 이름, 식사 예절, 돌과 회갑, 태권도 등 일부에 불과하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도 있고, 근접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보인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의 예절,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항목을 필요로 한다. 이 외에도 이들의 어떤 문화항목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 항목 선정,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서 적절한 항목을 배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재란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과정(process of education)에 투입되는 모든 자료로서, 학습자와 교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보았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교재는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가시적인 교육내용이다. 교재의 유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영역별, 지역별, 출신별, 언어권별, 수준별, 성격별, 위상별, 목적별 등으로 분류되고, 각각은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다.[29] 박영순(2003)에서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교포의 경우는 한국어 학습이 보존적 이중언어교육이 될 것이고 순수외국인일 경우는 첨가적 이중언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 학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

29)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교육 14 제 2권 참조

교재의 유형	영역별	회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법, 문화, 어휘
	지역별	한국, 중국, 일본, 북미, 호주, 유럽,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별	한국인, 외국인
	수준별	초급1.2, 중급1.2, 고급1.2, 최고급, 한국학 전공
	성격별	교실에서의 교수. 학습용, 자습용, 인터넷용, 교사용
	위상별	주교재용, 부교재용, 과제용, 평가용, 워크북
	목적별(기능별)	관광용, 교양용, 특수목적용,(언론, 외교, 통상, 군사 등), 어린이용, 중고생용, 대학학습용, 한국학 전공자용, 한국어교사용
	언어권별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 불어권, 독일어권, 노어권

격에 맞게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의 경우는 개인,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나 학습 목적, 한국어에 대한 정서 등에 맞춰 교재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이 모든 변인에 맞는 모든 교재가 존재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그런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한국어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보급하는데 훨씬 유용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을 알리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박영순(2003)에서는 Neville Grant(1987:120)의 8가지 교재평가 기준[30]을 종합하고 덧붙여서 새로운 교재 개발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철학이 있는 교재로 인류 보편적인 덕목이나, 한국의 홍보를 위한 교재 등등이 있다.

둘째학습자 중심의 교재이다. 학습자 위주의 교재란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학습자 변위중 상위 변인을 모국어, 출신지역, 연령, 한국어 능력 수준, 한국어 학습 목적, 한국어 학습 기간(계획된), 학습자의 요구와 희망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 하나하나의 변인은 다시 여러 가지 변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원어민 교사에 해당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국어 학습 목적을 취업 목적, 결혼 목적,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한 목적, 한국인과의 일상생활을 위한 목적, 학업을 위한 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재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없으면 좋은 교재라고 할 수 없다. 교재에 대한 흥미가 없으면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기가 어렵고 이는 학업의 지속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재미있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여 교재를 재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를 잘 몰라서 실수한 일화라든지, 한국을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한국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놀란 경험 등과 같이 그 내용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같은 문법 내용이나 어휘, 그리고 문장 유형을 다루더라도 최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장과 단원 구성이 되도록

30) ①Communicativeness(의사소통성), ②Aims(목표성), ③Teachability(교수성), ④Available Add-ons(부교재의 활용가능성), ⑤Level(학습자의 목표어 수준), ⑥Impression(매력), ⑦Student Interes(학습자의 흥미), ⑧Tried and tested(검증 가능성)등이 그것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교재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적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은 외국어를 학습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 동안 한국어 학습을 하더라도 이러한 지적 욕망을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줌으로써 한국어 학습에 더욱 많은 의욕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재에 한국의 역사나 문화, 자연환경 등을 다루면 언어 교육과 동시에 한국에 관한 이해도도 넓힐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특히나 초급자들의 경우 문법적인 어휘보다는 일상회화적인 표현을 많이 요구하고 한국문화를 몰라 당황하거나 실례를 한 경험들이 있어 한국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를 교재에 잘 응용하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에 의거한 교재이다.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각 교육과정에 따라 교재의 윤곽인 교수요목을 설정한 다음 실제의 교재를 개발할 때 다양하되 체계적인 교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래야만 교사나 학생이 교수·학습하기도 매우 효과적이 될 것이다.

여섯째는 정확하고 표준적인 한국어교재이다. 실제의 언어생활에서는 구어체나 비속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적어도 한국어 교재에서는 표준어와 정확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필요 없는 한국사회의 좋지 않은 현상들을 교재에 실어서는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의 외국어 교재를 보더라도 자기 나라의 나쁜 점을 싣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교재는 앞으로 이런 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재의 평가 부분에서도 역시 자연스럽고 정확하며 아름다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의 좋지 않은 면도 많이 접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재량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에까지 싣지 않는 것이지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고 목표언어능력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과서이다. 교재는 또한 목표 언어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야 한다. 즉 주어진 수준에 매우 적합한 교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재에서 배우 것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목들이 세부적으로 녹

아있는 교재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계속 연구 하고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영어 원어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재의 문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재는 그 사회와 문화적 수준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교재는 단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교육의 매개체라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하나 사회의 문화 척도를 보여주는 상품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교재는 우선 내용면에서도 그 사화의 고급문화를 담아야 하고, 삽화, 사진, 편집상태, 본문 및 표지 디자인, 제본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그 사화의 문화 수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경우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자마자 출근을 하고 바로 한국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문화적 충격은 물론이고 실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한 필수 회화와 설명 등이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자뿐만 아니라 교재를 인터넷화 할 필요도 있다. 전 세계 어디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학습에 있어 어휘 교육은 시작에서부터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어 수업 과정에서는 한정된 시간에 마냥 어휘 교육에만 매달릴 수 없다. 어느 수준에 이르면 어휘 습득은 학습자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어휘 습득을 해결해야 할 단계이전에는 한국어 교육에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가르치고 그 수준이 넘어서면 어휘 확장 교육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어휘 확장 교육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어휘를 기능과 의미와 함께 습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결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직업목적 한국어는 직업의 성격에 따

른 구체적인 분류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직업목적 한국어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은 비전문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문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중에서도 직업목적 한국어의 경우 한국어 사용 환경에 따라 학습자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맞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 직업목적 한국어교육에서 연구되어 온 비즈니스 한국어교육은 일반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것으로 영어 원어민 교사의 요구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비즈니스 한국어교육이 구체적인 사무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전화 받기, 메모하기, 회의하기, 서류 작성하기'등의 기능을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 원어민 교사들 역시 학교나 학원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직업적인 성격으로 한국어교육의 시기도 모국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한국인들의 정서, 습관, 생활 태도, 한국의 제도 등 한국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숙지 할 필요가 있는 집단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 집단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교육 시작과 함께 문화교육도 실시되어야 하며, 입국 전 교육 외에 입국 후에도 지속적인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원어민 교사만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비전문직 노동자나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우 한국어 학습 환경이 양호하고 무료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반면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대학의 어학원이나, 개인과외, 다른 한국어기관등에 수강료를 지불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들은 비전문직 노동자들에 비해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또 한국어 학습 여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집단으로 국내 한국어 시장에서 중요한 소비자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에 비해 한국어 강사들의 수가 많다보니 능력 있는 한국어강사들이 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요구와 부합하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다면 한국어 강사들이 설 수 있는 강단도 조금은 늘어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그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경우 한국을 알리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 잘 못 알려진 사실은 올바르게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근대화된 시기가 길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는 하나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서구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 정보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에서 1년여 정도 생활을 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혀 더 넓은 한국은 느끼고자 한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음식, 인정 넘치는 사람들을 보고 느껴 본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자 요구분석을 한 결과 그들 스스로가 한국에서 생활을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교재나 교육기관 등은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사용될 교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설문에 참가한 영어 원어민 교사의 수가 그 집단을 대표할 만큼의 많은 수는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요구 조사를 했음에 의의를 두며 앞으로 더 많은 영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한국어·한국 문화 영역에 대한 교재가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강현화(2007),『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영 한국어』, 다락원.

구민숙(200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보경(2003), “비지니스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미(2005), “문화에 기반한 한국어교재의 단원 구성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한(2009), “한국어교육 교재의 변천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유정(2008),『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제38호, 이중언어학회.

김인규(2003),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개발”, 한국어 세계화재단 14 제2권.

김정숙(1997),『한국어 숙달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제10회 한글학회.

김정은(2006),『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 이중언어학 제30호, 이중언어학회.

남경희(2002), “문화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방안”,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선미(2006),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강의 듣기 전략 교육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현식(1996),『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교육 권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민현식(2008),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18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선희(2004),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통합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 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박수정(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문학 텍스트와 문화교육 활용방안”, 아주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순(2002),『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한국문화사.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14차 제2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세계화재단.
배지윤(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모형”,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상규(2007),『한국어교육학과 기초 학문』, 한국어교육 제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송지현(2005),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과제 중심 요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인환(2008), “해외파견 전 한국어교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한국어교사 훈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미란•최정순(2007),『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언어능력기술』, 한국어교육 제18-1,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여경선(200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연구: 체험을 통한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선경(2005), “학문목적의 한국어 듣기 교육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용재은(2004), “대학수학 목적의 한국어 읽기 쓰기 교육방안 연구-학문적 텍스트 분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수정(2008), “직업목적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요구 분석을 통한 직업 목적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중심으로”, 제18차 국제학술대화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병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제6집.
윤여탁(2002),『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론,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 과제』, 한국 문화사.
윤여탁(2003),『문화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제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미혜(2003), “직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연구”,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석주(2002),『한국어 문화의 내용별. 단계별 목록 작성 시고』, 이중언어학 21호, 이중언어학회.
이유결(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경(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교재분석과 학습자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경(2005),『외국인의 대학 수학을 위한 어휘목록 선정의 필요성 연구』, 이중언어학 제29호, 이중언어학회.
이지현(2002),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내요 연구: 초급중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현(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내용 연구: 초급 단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영(2001),『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중언어학 제18호, 이중언어학회.
이해영(2004),『학문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연구』,한국어교육 15권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장경은(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정명숙(2003), “비즈니스 한국어의 교수요목 설계를 위한 연구”,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4 제2권, 한국어세계화재단.
조영미(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목표 문화 학습 연구: 한국어 화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창환(1996),『한국어교육과 연계된 한국문화 소개 방안』,한국말교육 권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항록•강승혜(2001),『초급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수 요목의 개발』,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학회.
조항록(2000),『초급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학회.
조항록(2008),『한국어교육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어교육 19-1, 국제한국어학회.
졸탄 도네이(2007),『외국어 연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방법론』, 한국문화사.
황인교(2007),『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문화』, 이중언어학 제35호, 이중언어학회.
황인교(2007),『한국어교육학의 문학 연구 방향』,한국어교육 제18-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황티엔(2008), "실무목적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및 적용-실무분서 작성 교육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록> 영어 원어민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 방법 연구에 관한 설문지

<부록1> 영어 원어민 교사 설문지

영어 원어민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 방법 연구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조화영입니다. 이 설문은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위한 것으로, 제 석사학위인 “영어 원어민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 방향”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잘 읽어보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How long have you studied Korean?

2.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Why are you studying Korean? Please number the following in order.
   ①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　　)　② 한국의 문화를 알기 위해(　　)
   Because live in korea　Because I want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③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　　)　④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　　)
   To make Korean friend　To communication better at work
   그 외에 이유가 있다면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If you have others reason please explain

3. 한국어의 어떤 항목에 관심이 있습니까?

What are you most interested in learning?

①문법(Grammar) ②듣기(Listening) ③읽기(Reading)

④말하기(Speaking) ⑤쓰기(Writing) ⑥생활, 문화(The Culture&Life)

4. 수업시간에 한국어 이외에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In addition to our Korean language lesson what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during our class? (except language, Please choose one. anything if you want)

①Korean history ②Korean culture

③Korean etiquette ④Korean food

5.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What resources do you use to find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Korean language and culture?

①Internet and book ②Korean friends and korean co-teachers

③Korean class ④Native speaker friend

6. 한국어를 언제 자주 사용합니까?

When do you most often use Korean? Please number the following in order.

1)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물건을 살 때 ,택시를 탈 때, 드라마를 볼 때, 한국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In everyday living Korean

(더 있다면 써주십시오.)

Any other times?

2)직장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할 때
At work
(더 있다면 써주십시오.)
Any other times?
7. 한국 문화나 한국어를 몰라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Have you ever felt uncomfortable because you didn`t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or culture? If yes, please explain.
Yes( ) No( )

8.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공부했습니까?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써주십시오.
Before you come to Korea, did you study Korean? Yes( ) No( )
-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배울 곳이 없어서)
If no, why you didn`t, please explain the reason

9.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Before coming to Korean how much did you know about Korea and Korean culture? Please choose one.
①잘 알고 있었다( ) ②조금 알고 있었다( )
③잘 몰랐다( ) ④전혀 몰랐다( )

10. 만약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와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정보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If there had been a free program in your home country that taught about Korean culture and basic survival Korean would you have use it?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If yes, please explain

11. 한국어를 알고 난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Now that you know Korean how has your life changed? Please number the following in order.

①생활하기 편해 졌다( )
Easy to live

②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Understand korean people

③직장생활이 편해졌다( )
More comfortable at work

④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편해졌다( )
Easy to teach student

12. 지금 한국어 배우는 곳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How did you learn about this class?

13. 동료 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Would you recommend learning Korean to others? Yes( ) No( )
추천하는 이유,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Why or why not?

14. 한국어 교육의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When do you think it is best to learn Korean? Please choose one.

①한국에 오기 전: Before coming to Korea ( )

②한국에 오자마자:Immediately after arriving in Korean( )

③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한 후:After having been in Korean for sometime( )

④필요하지 않다: Do not have to( )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